영광군의회, 수능기간 제주 연수…“격려·응원 없었다”

2박3일 연수 후 수능일 복귀 ‘빈축’
정책대안 연구 의정 역량 강화 연수
타지자체·의회 편의지원 수험생 응원
관내 일정상 연수추진 불가피 해명

영광군의회가 2025년도 대입 수능 기간 제주도로 의정연수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이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타 지자체·의회에서는 수험생들의 행정편의를 지원하고 응원전에 나서는 등 학생들의 앞날을 응원하기 위해 발로 뛰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이기 때문이다. 영광군의회는 관내 행사 일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수를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21일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군의원 8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16명은 지난 12일 제주도 단체 연수를 떠나 수능이 치러진 14일 복귀했다.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연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대안 연구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했으며, 연수 비용으로는 2900만원이 투입됐다.

연수에서는 조례 제·개정 및 지방자치 전반, 분산에너지법 교육과 4대 폭력예방·장애인 인권·아동학대예방 교육, e-모빌리티 현장 선진지 견학, 보름왓농장, 예산안 심사 및 정책지원관 역할 교육 등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영광군의회가 복귀한 당일은 수능일로 일선 지자체에서는 수험생을 위한 지원 대책을 적극 전개했다.

광주시와 자치구에서는 교통상황실 6곳을 운영하고 비상수송과 교통질서를 지원하며 시험장 38개교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등교시간 전에 집중적으로 배차했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도 섬 지역 수험생들이 미리 육지로 나와 차질 없이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숙박비를 지원하고 시험장 주변 차량 소통을 위해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했다.

지방의원들이 나서 수험생을 응원하는 곳도 있었다. 고흥군의회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의원, 의회사무과 공직자들이 수능이 치러지는 고흥고등학교를 찾아 수험생과 학부모를 격려했다.

영광에서 이번 수능에 응시한 학생은 총 319명이다.

지역 내에는 공립 4개교와 사립 2개교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영광고등학교와 해룡고등학교등 2개교에서 시험을 치렀다.

지역민들은 아쉽다는 표정이다. 수능은 매년 전 국민의 관심 속에 학생 이동, 보건 안전 관리, 시험 편의 등 행정력이 총동원되고 응원하는 큰 일인데 굳이 이 시기에 연수를 떠나야 했냐는 것이다.

군민 A씨는 “군의회가 정책 개발을 위해 연수를 떠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비행기 이륙시간 통제, 관공서 출퇴근시간 조정 등이 이뤄지는게 한국의 수능일이다. 연수 마지막날이라고 해도 수능일이 포함된 일정을 강행한 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며 “영광고·해룡고 정문에서 수험생을 응원하는 지역 의원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꼭 수능일에 추진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연수였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의회는 잇따른 행사일정으로 인해 연수를 갈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영광군의회 관계자는 “의회는 수능과 무관하기에 연수 일정을 검토할 때 수능일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읍·면민의 날 행사가 연달아 개최되면서 연수 일정이 미뤄졌고 오는 25일부터는 정례회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연수 추진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영암군, 임야 등 95필지 직권 정리
지적공부상 지목 불일치 토지 대상

영암군은 각종 인·허가 준공으로 현재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방식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직권 정리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완료되면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영암군의 직권 정리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농지·산지 전용 등으로 준공이 완료됐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지적공부상 전, 답, 과수원, 임야 등으로 기록된 토지 95필지다.

영암군은 이미 토지소유자들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우편으로 안내했고 이에 답한 55필지의 지목변경 정리를 마쳤다.

기간 내 지목변경 신청이 없는 40필지는 동법 제64조에 따라 직권 정리에 나선다.

나아가 관할 등기소 등기부 무료 촉탁 후 등기 완료를 통지해 토지소유자가 방문하지 않고도 지목변경을 마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지목변경 관련 궁금한 사항은 영암군 지적팀(061-470-2526)에서 안내한다.

박이규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 추가 대상지도 적극 발굴해 군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고혈압·당뇨 건강 교실 운영
화순군, 합병증 예방 등 교육

화순군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심뇌혈관 질환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혈관튼튼! 고혈압·당뇨 교실’을 내달 4일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건강교실은 고혈압·당뇨 질환이 있고 혈압·혈당 관리가 필요한 주민 265명을 대상으로 정상 혈압·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합병증 예방 및 저염식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혈관튼튼!고혈압·당뇨 교실’은 나드리복지관, 보건진료소 4개소, 보건지소 5개소를 중심으로 총 1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식품영양학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간편하게 조리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로만밀빵 샌드위치, 과일컵, 우유요거트를 실습·시식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혈압·당뇨 등 기초 검사 측정 △고혈압·당뇨병 질환 바로 알기 △만성질환 예방 식단 관리 교육 △만성질환 예방 식단 및 저염 식이 체험 등으로 실시된다. 화순=김선종 기자

24일까지 구례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노고단배 중등부 축구 페스티벌에 전국 중등부 선수들이 참여해 실력을 겨루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 노고단배 중등부 축구 대회 개최

중등 1·2학년…조별 풀리그 방식

구례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오는 24일까지 4일간 ‘2024년 구례 노고단배 중등부 축구 페스티벌’이 열린다.

21일 구례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전남도축구협회에서 주최·주관하며 전국 중등부 1학년 20개 팀, 2학년 16개 팀 1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조별 풀리그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다.

이번 대회는 평소 출전 기회가 적은 중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만큼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를 발굴하는 장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승패를 넘어 우정과 화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선수들이 멋진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대회 운영과 시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영광군, 26만여 필지 대상

영광군은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공시를 위한 토지 특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025년 조사 대상 필지 수는 약 26만 필지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군은 자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토지이동, 각종 인허가 자료, 토지 이용 상황, 도로 조건, 형상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조사한다.

지가산정을 위한 주요 일정으로는 내년 1월 17일까지 개별지 토지 특성을 조사한다. 같은해 1월 24일부터 3월 18일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을 실시한다.

이후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의 심의 후 4월 30일자로 결정과 공시를 하게 되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061-350-5086)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영광=김도윤 기자

함평군, 청년 역량강화 위한 맞춤 특강 마련

29일부터 3주간 매주 금요일

함평군이 오는 29일부터 총 3회(29일·12월 6일·12월 13일)에 걸쳐 청년 대상 맞춤형 청년특강을 개최한다.

21일 함평군에 따르면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특강은 29일부터 3주간 매주 금요일(오후 7~9시)에 진행될 예정으로 올해 새롭게 준공한 함평군 청년센터에서 열린다.

특강은 ETOOS 창업자이자 aSSIST(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경영대학원 부총장을 역임한 김문수 교수가 강사로 나서 투자의 본질(1회차), 남보다 앞서가는 경쟁 전략(2회차), 사람과 돈을 다루는 법(3회차)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접수는 청년이면 지역에 상관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28일까지 함평군 홈페이지에 기재된 QR코드를 활용하거나 전화(061-320-1722)로 신청하면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요즘 청년들이 취·창업 분야는 물론 투자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특강을 마련하게 됐다”며 “관심있는 지역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곡성군, 장애인 경제적 자립지원

곡성군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2025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21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참여자 모집 대상은 곡성군 거주,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으로 근로의욕과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인 자 등은 제외)는 신청이 제한된다.

모집규모는 사업유형에 따라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0명, 일반형일자리(시간제) 5명, 복지일자리 21명을 채용하며 월급여는 56만1680원부터 209만6270원까지 지급한다.

주요 직무로는 읍·면행정복지센터 행정업무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생활방역, 환경업무 지원 등으로 참여자는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각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일상에서 불편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